

현대중국어 ‘然後’의 담화기능 소고

- 전화참여 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박 찬 욱

(서울여자대학교)

1. 서론

본고는 라디오 방송의 자연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현대중국어 ‘然後’의 성격과 담화기능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然後’에 대해 《應用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0)에서 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然後]

連詞: 表示接着某種動作或情況之後(會怎麼樣); 表示一事情之後接着又發生另一事情。

(연결사: 어떤 동작이나 상황에 이어서(어떻게 되다)를 표시한다; 한 사건 뒤에 이어서 또 한 사건이 발생함을 표시한다.)¹⁾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음.

1) ‘連詞’는 접속사 또는 연결사로 번역 가능하다. 접속사를 좀 더 포괄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등위 또는 접속 등의 관계보다 (담화차원의) 논리적 연결 관계를 보다 강조하고 있고 영어의 ‘connective’와도 대응된다는 측면에서 연결사라는 술어를 채택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 사전에서는 ‘然後’의 의미에 대해 ‘동작 또는 사건의 전후 관계’를 표시하는 연결사로 정의하고 있는데, ‘동작 또는 사건의 전후’는 시간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인)시간의 전후를 표시하는 연결사로도 관찰되어 왔다. 이러한 정의가 물론 현대중국어 ‘然後’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지만 관찰의 범위를 문장에서 담화로 그리고 백화문에서 자연담화로 확장한다면 ‘然後’의 의미와 기능은 좀 더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다. 다음의 예가 그것을 보여준다.

- (1) B: 我說，你最好給我，出一個證明，**然後**就證明我：，...那個：，這個不良記錄，不是我造成的。
(되도록이면 내게, 증명서를 끊어 주세요, 내가, ...그러니까:, 이불량기록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난 것을 증명해 달라구요.)

예(1)에서 B는 라디오 전화참여자로서 은행과의 마찰과정을 진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는 ‘然後’를 이용하여 두 “證明” 간의 관계, 즉 어떤 “證明”인지를 구체화하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사전적 의미로는 쉽게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서 자연담화에 대한 정성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본고의 논의는 이와 같은 관찰에서부터 시작된다. 언어 항목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그것이 사전이기 때문에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해 실제 담화에서 보이는 기능을 충분히 기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공시적 변화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못 한다.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좀 더 다양한 쓰임을 고찰하고자 본고는 ‘사용 중인 언어’(language in use) 분석을 통해 언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기능주의적 시각과 자연담화에 대한 분석들을 제시하고 있는 대화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然後’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한 ‘然後’의 분석은 일찍이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발화의 공백(pause)과 관련한 Huang(1993), 언어내용과 언어행위를 구분하여 분석한 畢永峨(1994), 담화의 연속성과 담화표지어로서의 ‘然後’를 논한 Su(1998), Schiffrin(1987)의 시간(발화시간, 사건시간, 담화시간) 개념과 일관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Wang(1998), 어법화 측면에서 연결

사를 분석한 Wang과 Huang(2006) 등이 그에 속한다. 선행연구들은 '然後'의 공시적인 변화에 주목하였다는 점, 그리고 담화기능 분석에 있어 해석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후행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어 보충이 필요하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공시적인 변화에만 주목한 나머지 '然後'를 본래부터 하나의 단위로 인정하고 '然'과 '後'의 의미 및 그것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다. 둘째, 위와 같은 결과 '然後'가 갖는 의미의 허화가 다양한 담화기능 획득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고에서 논의되는 담화기능은 선행연구의 발견에 바탕하고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어도 보충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는 그 가능성만 언급되어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좀 더 많은 예와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도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然後' 자체에 대한 의미 고찰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다양한 담화기능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추론한 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의 언어자료 내에 출현하는 '然後'의 담화기능을 분석,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결과는 실증연구의 한계일 수 있는 정량분석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선행연구를 보충함으로써 자연담화 연구의 관점을 지지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본론은 언어자료 제시, '然後'에 대한 성격 규정과 기능 분석으로 나뉜다. 성격 규정 부분에서는 '然後'의 의미와 담화시간 그리고 담화 속에서 출현하는 위치가 논의되며 기능 분석 부분에서는 사건의 전후 관계 표시기능, 논리적 연결 관계 표시기능, 말차례 표시기능 그리고 발화공백 보충기능이 논의될 것이다. 결론 부분에서는 논의의 정리와 함께 '然後'가 갖는 기능의 분화원인과 본고의 함의가 논의된다.

2. 본론

2.1 언어자료

본고의 언어자료는 두 개의 라디오 전화참여 프로그램을 녹음하여 전사한

것이다. 녹음시간은 총 66분 52초이고 전사분량은 20,281자이다. 이 중, 본고의 분석대상인 ‘然後’는 총 102번 출현한다. 전사방식은 억양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Du Bois 등(1993)의 전사체계를 따랐다. 두 프로그램 중 하나는 전화참여자의 호소내용을 듣고 통화 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江蘇經濟臺<投訴現場>오후방송)이고, 다른 하나는 전화참여자의 경험을 듣고 방송을 통해 공유하는 프로그램(江蘇音樂臺<飲食男女>새벽방송)이다. 프로그램은 각기 다른 주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금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추행’이다. 세부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언어자료 세부내용

분석자료	매체	형식	주제	시간	자수	然後출현 횟수
언어자료1	라디오	전화참여	금융	19분40초	6,430자	61개
언어자료2	라디오	전화참여	성추행	47분12초	13,851자	41개
총계				66분52초	20,281자	102개

2.2 ‘然後’의 성격

본 절에서는 자연담화 속에서 ‘然後’가 갖는 기본의미, ‘然後’와 담화시간 간의 관계 그리고 담화 속에서 보이는 ‘然後’의 출현위치로 나누어 성격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2.1 ‘然後’의 기본의미

‘然後’는 ‘然’과 ‘後’의 합성어로서, 다음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전국시기부터 이미 함께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2) 子貢反，筑室於場，獨居三年，然後歸。《孟子 滕文公上》

(자공은 돌아와 마당에 집을 짓고 홀로 삼 년을 지낸 뒤에 돌아왔다.)

고대한어에서 사용된 ‘然後’의 의미파악을 위해 《古代漢語虛詞詞典》(商務印書館 2004)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 (3) 複合虛詞。‘然’本是代詞，義爲“如此”、“這樣”。‘然後’實際上是“如此而後”的意思；後來逐漸凝固爲一個詞，與今語同。(복합허사. ‘然’은 본래 대명사로서 뜻은 “이같이”, “이렇게”이다. 그러므로 ‘然後’는 사실 “이와 같은 후에”라는 의미이다. 후에 점점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결과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위의 풀이는 ‘然後’가 복합어라는 점 그리고 ‘然’을 “如此”나 “這樣”과 같은 (지시)대명사로 해석함으로써 ‘然後’가 전방조응적(anaphoric)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것의 기본의미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풀이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기도 한다. 첫째, ‘然’의 해석을 “對”나 “是” 등의 발화 대응어로까지 연계시키지 못하였다는 점, 둘째, ‘然’의 해석만 제시했을 뿐 ‘後’에 대한 해석은 소홀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然後’의 기본의미에 대한 좀 더 나은 해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보충할 수 있다.

‘然’은 아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상대방 말에 대한 대응어로서도 기능하였다.

- (4) 公見其妻曰：“此子之內子邪?” 晏子對曰：“然，是也。”《晏子春秋》
(景公이 그의 처를 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당신의 아내인가?” 晏자가 대답하였다: “예, 이 사람입니다.”)

이때 ‘然’은 상대방의 질문에 ‘맞다, 그렇다’라는 ‘동의’ 또는 ‘확인’의 의미를 갖는다. ‘然後’에 대한 기본의미해석에 있어 ‘然’의 의미를 이와 같은 동사성 술어와 연계시키는 이유는 앞서 제시했던 전방조응적인 기능, 즉 지시사로서 다소 허화된 의미는 동사라는 내용어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어휘항목이 동사와 지시사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때 어느 한

쪽에서부터 시작하여 분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을 ‘구체’에서 ‘추상’으로의 단일방향가설(Hopper & Traugott 1993)에 근거할 경우 ‘然’이 내용어에서 기능어, 즉 동사에서 지시사로의 허화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도 추론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은 대화 속에서 기능하던 ‘동의’나 ‘확인’의 의미가 개인의 진술 속에서는 선행발화 ‘전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전이되었음을 가정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然後’가 어떻게 선행동작이나 사건을 바탕으로 후행동작과 사건을 제시하는데 쓰이게 되었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으로 ‘後’에 대한 해석이다. ‘後’의 의미는 은유에 의한 어법화에 근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Heine 등(1991:173)은 아프리카어의 일종인 Ewe어에서 ‘뒤’를 의미하는 megbé의 어법화 과정을 논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시한 범주의 변화와 Ewe-영어 간 대응관계를 참고하여 중국어로까지 대응관계를 확장시켜 본다면 대략 아래와 같다.

(5) 사람	>	물체	>	(과정)	>	공간	>	시간	>	질
back of body		back part		behind		after		retarded		
背後		後面		後門		日後		落後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後’도, 다른 언어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신체’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 의미가 은유의 과정을 거치며 결국 ‘시간’이나 ‘질’ 등의 추상적 의미로 변화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然後’의 일부로서 ‘後’는 위와 같은 의미의 연속변이 속에서 ‘시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然’과 ‘後’의 의미변화 과정을 볼 때, 이 둘의 결합은 두 질(또는 문장이나 담화) 사이에서 연결사로 기능하며 또 다른 범화된 의미의 획득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 가능성을 유추해볼 때, ‘然後’는 ‘그러하다, 그와 같다’의 ‘然’과 ‘시간’적 의미로서의 ‘後’가 결합하여 ‘그러한 뒤’ 또는 ‘그(러한) 다음’이란 기본의미를 얻고, 다시, 그 바탕 위에 ‘然’의 ‘대응’적, ‘조응’적 의미가 시간으로서의 ‘뒤’와 반응하여 탈색과 은유의 과정을 거치며 빈번한 쓰임 속에서 ‘선행발화를 인정한 뒤’ 또는 ‘선행명제나 사건을 전제한 뒤’라는 좀더 추상화된 의미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바탕으로 한 ‘然後’

의 기능은 아래 2.3에서 살펴볼 수 있다.

2.2.2 ‘然後’와 담화시간

Schiffrin(1987:228~229)은 ‘then’의 담화기능을 논하면서 ‘then’이 발휘하는 기능은 세 개의 시간역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였다. 발화시간(reference time), 사건시간(event time), 담화시간(discourse time)이 그것으로, 여기서 발화시간은 말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명제가 발화를 하는 ‘현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제가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건시간은 발화된 문장에서 선행절(문)의 명제와 후행절(문)의 명제가 어떠한 전후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담화시간은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시간보다는 발화행위 자체의 전후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담화속에서 무엇을 먼저 제시하고 무엇을 나중에 제시하는지와 관련된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然後’도, 2.3에서와 같이, 다양한 시간적 층위 상에서 기능하는데 이는 앞서 제시한 ‘後’의 의미와도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然後’가 이 세 개의 시간역에 걸쳐 있으면서도 어느 시간역에서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하는가 하는데 있다. 왜냐하면 ‘然後’가 기능하는 시간역이 발화시간에서 사건시간과 담화시간으로 확대될수록 그것과 연관된 언어 단위도 크고 다양해지며 담화의 일관성 성취에도 기여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이원표 2001) 그 중에서도 발화시간과 관련된 ‘然後’의 예는 그것이 가지는 기능의 변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 예를 보도록 하자.

- (6) 她將在北京停留一個星期, **然後**飛往上海. (미래) 《應用漢語詞典》
(그녀는 북경에서 일주간 머문 후 비행기로 상해를 갈 것이다.)
- (7) 包的時候, 把餡兒放在皮兒的中間, 不要放得太多, **然後**把兩邊合上. (현재) 《漢語口語》
([[만두를] 빚을 때는, 속을 피 중간에 넣는 거야, 너무 많이 올리진 말고, 그 다음 양쪽 끝을 눌러.)

- (8) 站在我的面前三四米的地方, 聽了足足半個小時, **然後**便慢慢地向我走來。(과거) <北大語料庫>2)
 (내 앞 3, 4미터쯤 서서 죽히 30분은 얘기를 듣고난 뒤 천천히 내게 걸어왔다.)

위의 예에서 ‘然後’는 미래와 현재 그리고 과거시와 모두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다. 이는 ‘然後’가 어느 특정 발화시간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하며, 2.2.1의 논의와 관련시켜 볼 경우 그것이 갖는 ‘시간’이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순차적 ‘순서’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然後’가 발화시간을 표시하는 기능보다는 담화 속에서 사건시간과 담화시간을 더 많이 표시할 것임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형태변화가 없는 고립어적 특성, 시(時)보다는 맥락에 의존한 상(aspect)의 해석 등 중국어가 갖는 언어적 특징과도 호응하는 동시에 순차적 ‘순서’로써 ‘然後’가 두 절, 문장, 담화 간에 존재하는 논리적 연결 관계를 다양하게 표시하는데 대해 설명의 단서를 제공해 준다.

2.2.3 ‘然後’의 출현위치

‘然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의 하나로서 말차례(turn)³⁾ 내에 출현하는 ‘然後’의 위치와 ‘然後’의 전후로 출현하는 휴지(pause)를 들 수 있다. 말차례의 앞부분에 위치하는가 또는 중간이나 뒷부분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그것이 발휘하는 기능이 다를 수 있고 또 기타성분을 부가하고 있는가 여부에 따라서도 그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항목에 대한 관찰 시 흔히 취하는 백화문 문장들을 보면 모두 긴 숨으로 요소요소가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담화에서는 화자가 갖는 정보처리 능력과 호흡의 한계 등으로 인해 잦은 쉬, 실수가 출현하며 그때그때마다 수정(repair)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특히, 한 언어항목의 앞, 뒤로 자주 출현하는 휴지는 그것

2)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xiandai

3) 말차례(turn)란 ‘한 화자가 발화를 시작해서 청자로 돌아가기까지 발화된 것’ 또는 ‘(말차례가 부여된) 그 순간의 말 할 권리’를 의미한다.(박성현 2008,8)

이 처한 앞, 뒤 절 또는 문장으로부터의 통사적 독립을 의미하며 또 앞, 뒤 절과의 의미관계도 필수적인 것에서 수의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는 ‘然後’의 출현위치와 전, 후 휴지의 출현횟수에 대한 통계결과이다.

〈표 2〉 ‘然後’의 출현위치와 전, 후 휴지의 출현횟수

	말차례앞	말차례 중간		‘然後’ 뒤 휴지유무	부가성분유무
		, 뒤	。 뒤		
언어자료1	13	18	30	36	27
백분율	21.31	29.51	49.18	59.02	44.26
언어자료2	11	11	19	24	17
백분율	27.5	27.5	47.5	60	42.5
언어자료1,2	24	29	49	60	44
합계	23.5	28.4	48	58.8	43.1

위의 통계 결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해석할 수 있는데, 말차례에서의 위치와 ‘然後’ 뒤의 휴지 출현유무가 그것이다. 우선 말차례와 관련하여 보면, ‘말차례 앞’이 23.5%, ‘말차례 중간’이 76.5%로서 ‘然後’는 말차례 앞보다는 말차례 중간에서 더 많이 출현함을 알 수 있다. 말차례의 중간에 보이는 ‘然後’은 다시 ‘, 뒤’와 ‘。 뒤’로 나뉘는데, 각각 28.4%, 48%로서 ‘。’의 뒤에 더 많이 출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는 ‘然後’의 기능해석에 어떠한 단서를 제공해줄까? 첫째, 말차례 중간에 좀 더 자주 출현한다는 것은 ‘然後’가 말차례의 표시에 기여하기보다는 화자의 서술이나 평가, 회고 등에 쓰여 담화의 내부응집성과 일관성에 좀 더 많이 기여함을 의미한다. 둘째, 말차례의 중간에서도 ‘。’ 뒤에 자주 출현한다는 것은 ‘인과’, ‘부연’, ‘요약’ 등과 같이 선행발화를 전제로 한 담화의 전개나 덧붙임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좀 더 많이 기능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는 화자의 발화가 끝났음을 의미하는데, 그 뒤로 ‘然後’가 출현한다는 것은, 발화행위의 일단락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다한 말이 남아있거나 추가로 무엇인가를 더 전개한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然後’ 뒤의 휴지 출현여부와 관련하여 보면, 전체 102개의 ‘然後’ 중 59%에 달하는 60개의 ‘然後’가 뒤에 휴지를 두고 있다. 이는 우리가 평소에 백화문으로 보던 ‘然後’와는 다른 결과로서, 앞, 뒤 절이나 문장과 통사적 독립 가능성을 함의하며 의미관계에 있어서도 단지 ‘동작의 연이은 출현’을 초월하여 추상화된 의미로의 변화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2.3 ‘然後’의 기능

본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然後’의 성격을 근거로 그것의 담화기능을 논하고자 한다. 기능은 크게 사건의 전후관계 표시 기능, 논리적 연결관계 표시 기능, 말차례 표시 기능, 발화공백 보충기능 등 네 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2.3.1 사건의 전후관계 표시

사전 상의 정의—‘동작의 연이은 발생’—에 부합하는 기능으로서 ‘然後’ 앞, 뒤로 발화된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작의 전, 후행 관계를 갖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9) B: 他們, ... 噯.. 噯--... 噯就是沒辦法了嘛。

A: 噯。

→ B: 然後就::, 打電話, ..然後領導, ..在家裏面跟我說的話,

A: [噯]。

→ B: [噯]這樣, ...然後領導就承諾。就是說, 肯定是不會,

(B: 그 사람들은, ...어..음--..어 방법이 없다고 하잖아요.

A: 네。

B: 그래 바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대표가, ..집에서 나와 통화를 했어요

A: [네]。

B: [어]그렇군요. ...그리고 나선 확답을 하더라구요. 뭐됐냐면, 분명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⁴⁾

4) 기능과 관련한 번역은 전후 맥락과 발화자의 발화 스타일을 살려서 하려 했다.

예(9)에서 B는 대출한 돈을 은행에 반환했음에도 기계적인 오류로 인해 신용불량 낙인이 찍혀 방송국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백방으로 찾아 다니고 전화를 걸어 어렵사리 확인을 받았었다는 사실을 서술하면서 세 개의 '然後'를 이용하여 사건발생의 전후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예(9)에서 사건은 "他們(說)沒辦法→我打電話→領導說話→領導承諾"의 순서를 갖는데 여기서 화자는 '然後'를 이용하여 각 사건발생의 전후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然後'의 기능이 사전 상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해도 그것의 연결단위에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사전에서는 모두 하나의 주어에 여러 동사가 연결되어 있어 동일한 주체 하의 상이한 동작들로 예를 들고 있으나, 예(9)에서 보듯이, '然後'의 연결단위는 상이한 주체의 상이한 동작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상의 정의보다 좀 더 큰 단위 간의 전후관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3.2 논리적 연결관계 표시

앞선 논의에서 '然後'는 '선행발화를 인정한 뒤' 또는 '선행명제나 사건을 전제한 뒤'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발화시간을 넘어 사건시간이나 담화시간 상에서 여러 논리 관계를 표현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아래 예는 그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인과, 부연, 양보는 사건시간 상에서 그리고 나열은 담화시간 상에서 '然後'가 기능한 결과이다.

2.3.2.1 인과

후행사건이 선행사건의 원인 또는 결과일 때 '然後'는 전, 후행 사건을 연결하며 두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표시한다.⁵⁾

(10) B: 對。..但是, ..問題是:, 現在, 就是, 關鍵, 就是說, ..我

그러므로 제목 상의 기능과 괄호 안의 번역이 일대 일 대응되지 않을 수 있다. 원문에 붙인 '→'를 넣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5) Su(1998:173)는 '결과(consequence)'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의 자료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們後來, ...嗯那個:, ...深圳發展銀行, → 也知道這個情況
啊。**然後**我們也把這個單子,

A: [嗯]。

B: [也]送---也送到, 深圳發展銀行。

(B: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관건은, 뭐냐
면, ..우리가 나중에, ...어 그제:, ...深圳發展銀行도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수증도,

A: [네]。

B: [거기에도]보---深圳發展銀行에도, 보냈으니까요.)

(11) B: 但是, 現在--那現在, 就是說, 有---還是有, ...那個, 不良
記錄。然後, ...也, ..也扣了我們錢了。→ **然後**, 我就投
訴。

(B: 그렇지만, 지금--어지금도, 그러니까, 있--아직도 있다니까요, ...
그, 불량기록이. 그런데다, ...돈도, ..우리 돈도 떼갔다구요. 그래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예(10)에서 B는 은행이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는데 그 알게 된 경위는 자신
이 은행에 관련 영수증을 보내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然後’를 사용하고
있다. 예(11)에서 B는 자신이 대출금을 환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기록
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하면서 ‘然後’를 사용하
였다. 예(10)과 예(11)에서, 두 사건은 비록 ‘然後’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의
전, 후 관계를 참고한다면 충분히 ‘因爲’나 ‘所以’로 대체가 가능하다. 흥미
로운 점은, 이렇듯 시간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어휘항목이 인과관계를 표시하
는 의미로 변화하는 현상은 기타 언어에서도 출현한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이제’(이원표 2001)나 영어의 ‘since, now, consequently’(Traugott &
König 1991:194~199)등도 의미관계를 표현함에 있어 화용적 추론에 의해
‘인과’ 또는 ‘시간과 인과’ 관계를 동시에 표시하는데,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
는 ‘然後’역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2.3.2.2 부연

예(1)과 같이 '然後'는 선행 발화 내용의 구체화를 이끌거나 서술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때 추가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12) A: 就是, 12月28號, 商業銀行[說],

B: [對].

A: 錢才到。

B: 對, 深圳發展銀行說, 錢才到。

A: 嗯。..那麼你是到, 商業銀行去查的?

→ B: 對。然後, 商業銀行, 然後:, 就是說, ...呃:, 我們當時, ...發展銀行就告訴我們, ..已經有了:, 就是說, 不良--已經:, 有不良記錄了。

(A: 그러니까, 12월 28일, 商業銀行 [말은],

B: [네].

A: 돈이 지금에야 들어왔다.

B: 네, 深圳發展銀行 말이, 지금에야 들어왔다 했어요.

A: 네. ..그럼 商業銀行으로, 확인하러 가보셨던 거구요?

B: 가봤어요. 게다가, 商業銀行은, 어:, 그러니까, ...어:, 우린 그 때, ...發展銀行에서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 ..이미 남았다는 거예요:, 뭐냐, 불량--이미:, 불량기록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예(12)에서 A는 B가 긴장하며 두서없이 얘기를 꺼내자 “12月28日”과 “錢才到”로 중요 항목만 집어내며 B의 발화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이에 B는 “對”로써 A의 발화에 동의를 표하였고 A가 다시 “商業銀行”에 가보았는지의 여부를 묻자 B는 “對”로 선행화자의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한 뒤 ‘然後’를 이용하여 진술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선행발화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후행발화행위가 인접하여 상호작용 단위를 구성한다는 인접쌍(adjacency pair) 개념에 비추어 보면(Schegloff & Sacks 1973), “你是到, 商業銀行去查的?—對。”는 이미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對”이후에 부가적인 성분이 붙는 것은 수의적인데 이 때 화자는 ‘然後’를 이용하여 “深圳發展銀行說, 錢才到”만으로는 설명이 미진했던 자신의 상황—“有不良記

錄了”를 이끌어내고 있다.

2.3.2.3 양보

선행사건이 후행사건과 의미적 대립을 이룰 때 ‘然後’는 전, 후행 사건의 중간에서 두 사건 간의 양보관계를 표시한다.

(13) A: 你看, 有個四川吶, 呃::, 來上海打工的, 這個, 打工妹楊某哈, 在一家, 這個, 餐廳裏面, 這個, 上班. 因為住宿條件所限, 她跟幾個男同事呢, 住在, 一塊, ..怎麼講, 就是用:幾個床板拼接的簡陋的屋子裏面. 啊. 平時的起居的各種聲音都清清楚楚的. 根本談不到甚麼隱私. **然後**呢, 幾個男同事他, 故意當着她的面講葷段子, ..開葷玩笑哈.

(A: 들어보세요, 四川예요, 어::, 上海로 일하러 온, 그, 여성 노동자楊모 양 얘기인데요, 어느 한, 어, 식당에서, 아, 일을 하는. 거주 조건이 열악하다보니, 몇몇 남자 동료들과, 살았데요, 같이, ..뒤편까, 널빤지 몇 개를 이은 낡은 방에서요. 음. 그러니 평소 일상의 각종 소리들도 너무 잘 들렸구요. 사생활은 아예 얘기를 못 꺼냈던 거죠. 그런데도, 몇몇 동료들은, 고의로 그녀가 앞에 있는데도 음담패설을 하고, ..야한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예(13)에서 A는 상해의 어느 여성 노동자가 당했던 성추행 피해 경험을 소개하면서 ‘然後’를 사용하고 있다. ‘然後’를 기준으로 앞부분에서는 그 여성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서술하고 뒷부분에서는 그 환경 속에서도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남성 노동자들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이 때 ‘환경’(남녀동숙)과 ‘행위’(음담패설)는 상호 배척관계로서, 여기서의 ‘행위’는 서술되는 상황에서 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13)에서 ‘然後’는 ‘雖然那樣’으로 대체 가능한 양보관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다.

2.3.2.4 나열

Su(1998:173~174)에서도 볼 수 있듯, ‘然後’는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

의 발생 전, 후 관계나 의미적 논리관계 표시가 아니라, 화자가 발화 과정 중에 자신의 발화내용을 재구성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자 '나열'할 때 사용된다.

(14) A: 我們來看一看, 這個, 容易發生, 這個, 性騷擾的, 高危險場所, …… 第一個呢, ..就是相對封閉的工作場所. ……那麼還有一個狀況呢, 就是在, 流動性比較強的這個, 公共場合哈. ……然後呢, 還有:, 是在這個, 這個大家沒有講到, 就是%, 在接待客戶的, 酒宴, 或者是, 這個, 舞會上. ……然後呢, 其實剛剛我們的這個, ..王確講到說, 學校裏面, ……然後呢, 我們再看一看, 比方說, 這個, ..呢:, ..被, ..陌生人哈, 或者家庭電話, ..哇, 拼命地打電話來騷擾你啊。

(A: 그럼 우리 좀 살펴보죠, 예, 성추행이, 음, 잘 발생하는, 경계장소로,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작업장이에요.. ……다음으로 또 다른 상황으로는, 바로, 유동성이 많은 그, 공공장소예요. ……그 다음으로는, 또:, 이곳, 이곳은 모두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술자리나, 또는, 그, 무도회장이예요. ……그 다음은, 사실 우리의 그, ..王確이 좀 전에 얘기한, 학교 안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낯선이에게서응, 또는 집전화로, ..어, 죽어라 전화해서 추행하기도 하죠.)

예(14)에서 A는 성추행에 대한 게스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然後'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추행이 자주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일목요연한 제시로 라디오청중들에게 조심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 중 화자가 제시한 장소는 “封閉的工作場所—公共場合—酒宴舞會—學校—家庭電話”로 간추려질 수 있으며 앞 장소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다음 경계장소—酒宴舞會, 學校, 家庭電話—로 넘어갈 때마다 일종의 항목 간 경계표지로서 '然後'를 사용하고 있다. 예(14) 중간 중간의 말줄임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A는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며 장소에 대한 주의를 시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관된 발화방식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결과로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然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3.3 말차례 표시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참여자는 말차례 갖기 체계(turn-taking system)에 따라 화자와 청자의 역할을 돌아가면서 맡는다.(Sacks, Schegloff & Jefferson 1974) 한쪽이 발화를 하면 다른 한쪽은 듣고 그 화자의 발화가 끝나면 청자였던 사람이 다시 말차례를 이어 받아 발화를 한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보면 알겠지만 말차례 갖기가 항상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의견 충돌을 겪는 과정에서는 반박을 위해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차례를 빼앗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화자의 발화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이고자 말차례를 가져와 질문할 수도 있으며 또 자신의 미진한 서술을 보충하기 위해 타인의 말차례 쟁취를 방어하기도 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인 ‘然後’도 말차례 체계 속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유지’, ‘쟁취’,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3.3.1 말차례 유지

말차례의 유지를 위한 ‘然後’는 주로 ‘.’ 뒤에 출현하는데, 화자가 발화하고 있는 과정에 상대방이 말차례를 가지려 시도하거나 청자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현행 말차례가 넘어가려 할 때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신호로서 기능한다.6)

- (15) B: ..深圳發展銀行, 可能就銀聯, 出了問題。[然後],
 A: [嗯:]. 就是說
 B: ..嗯:, 不會, 就是說:, ..嗯:, 讓我們, ..就是說, 這個這
 個不良:, ..記錄的[影響].
 A: [影響]。=
 → B: =然[後],

6) Wang(1995:393)은 이러한 기능을 ‘然後’의 화자지속표지(marker of speaker-continuation)라고 하였다.

- A: [嗯].
- B: ...然後, 這個錢, 也不會扣我們的.
- (B: ..深圳發展銀行에, 아마 銀聯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 같
다고, [그러니],
- A: [네:]. 그러니까,
- B: ..어::, 없을 거라고, 뭐냐면:, ..음:, 우리한테, 어, 그 그 불량,
기록의 [영향]이요.
- A: [영향]이요.=
- B: =그러[면서],
- A: [네].
- B: ...그러면서, 이 돈도, 우리 돈도 떼진 않을 거라고요.)

예(15)에서 B는 네트워크 상의 문제이므로 불량기록도, 돈을 떼이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商業銀行”이 한 얘기를 전하고 있다. 첫째 행에서 B의 발화는 A의 발화와 겹치며 말차례가 넘어가는 듯 했지만 A가 “就是說”로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B가 다시 말차례를 가져와 발화를 이어가고 있다. B는 본래 ‘불량기록’에 관한 일과 ‘돈을 떼인 일’에 관해 언급하려 했지만 불량기록에 관한 얘기 말미에서 A의 발화와 겹치게 되자 A의 말이 끝나는 동시에—‘=’로 표시—‘然後’로 다시 말을 이어가려 한다. B와 A가 겹치는 “影響”에서 A는 말차례를 가지려 시도 했다가보다는 오히려 B의 말에 몰입함으로써 B가 하려한 말을 A가 미리 예견하고 말한, 적극적인 호응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B는 말차례의 방어 차원에서 ‘然後’를 사용하였고 “嗯”과 다시 말이 겹치자 재차 ‘然後’로써 아직 자신의 말이 끝나지 않았음을, 그래서 말차례를 유지하고자 함을 표시하고 있다.

2.3.3.2 말차례 쟁취

말차례 쟁취가 위에서 논한 ‘유지’와 보이는 차이점은 상대방에게 말차례가 넘어갔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보유한 자신의 말차례에서 계속 말하고자 했다면 ‘유지’의 기능을, 그리고 상대방의 말차례를 자신의 말차례로 돌리고자 할 경우에는 ‘쟁취’의 기능을 수행한다.

(16) B: 現在這個錢呢, 現在, ..現在這個錢, 在十二月, ..二十, 八號的時候, 就, ..是::, 才在我們的(一債), 就是說, 到, 商業銀行去, ..去[1查去找1].

A: [1就查這個1], 這個[2錢的這2]個[3下落3],

→ B: [2然後2], [3啊:3].

A: 嗯?

→ B: 對, 對. 然後, 深圳發展銀行, 一直都告訴我們, 說這個錢沒有到, 沒有到.

(B: 지금 이 돈은요, 지금, ..지금 이 돈은, 12월, ..20, 8일이, 되, ..어서::, 그 때서야 우리(대출금)을, 그러니까, 商業銀行에, 가서, ..가서[1 찾아봤어요1].

A: [1 찾았다구요1], 그[2 돈의2] 그[3 행방을3],

B: [2 그러니까2], [3 어:3].

A: 네?

B: 네, 맞아요. 그러니까, 深圳發展銀行은, 줄곧 우리에게, 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 거예요.)

예(16)에서 B는 제3은행을 통해 대출금 환급을 했음에도 해당은행에 늦게 입금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행에서 보이는 B의 발화는 A의 “돈의 소재를 모르는가?”에 대한 대답으로서, 12월 28일에서야 해당은행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하려 하지만 순간 발화내용의 순서를 고민하는 듯 말을 머뭇머뭇하다 결국 “到商業銀行去查去找”라는 말로 질문에 응한다. 이때 A는 말걸침을 통해 B의 발화가 끝나기도 전에 말차레를 가져온 뒤 진술인 “就查這個錢的下落”에 확인을 요하는 “嗯?”을 부가시켜 좀 더 구체적으로 ‘돈의 행방’을 물어본다. 이 과정에서 B는 ‘然後’를 이용하여 말차레를 되찾아 오려고 반복적인 말걸침을 시도하지만 결국 “嗯?”에 대한 응답—“對”—을 하고서야 ‘然後’로 말차레를 획득한 뒤 ‘소재’에 대한 부가적 진술을 행하고 있다.

2.3.3.3 말차레 관리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방이 말차레를 가져가려는 시도와는 관계없이 상대

방으로부터 즉흥적인 질문을 받는다든지 진술을 하다가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발화도중 화자 스스로가 수식성분의 즉흥적인 삽입을 시도하는데, 이런 경우 '然後'는 발화가 끊긴 지점으로의 복귀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말차례의 주고받음과 상관없이 화자가 자신의 말차례 속에서 무엇을 제시해야 하는지 또는 일관된 진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와 관련한, 말차례 관리 기능으로 볼 수 있다.

(17) A: 嗯。我想問一下兒，那後來，這個：，商業銀行是甚麼態度？

→ B: ...(1.1) 嗯，其實現在商業銀行，它好像就沒事兒了，[然後就是]-

A: [就不管了]？

→ B: 啊，不管了。然後就是，深圳發展銀行就問我，.. 嗯：，怎麼個補救辦法？

(A: 네.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그 후에, 저:, 商業銀行은 어떤 태도를 보였죠?)

B: ...(1.1) 음:, 사실 지금 商業銀行은,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 해요, [그리곤]-

A: [신경 쓰지 않는다]？

B: 네, 신경 쓰질 않아요. 그리곤, 深圳發展銀行이 몰랐었어요, ..어:, 어떻게 보완할까 하면서)

(18) B: 我跟:, 深圳發展銀行, 那個, ...(××)的, 那個, ..因爲我, 貸款在那兒, 貸的嘛。然後, ...(0.9)→ 他就是說, ... 嗯, 他那個, ..信:貸部的, 然後, 就是說, ..我支持你們。

(B: 제가:, 深圳發展銀行과, 그, ...(××)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대출금을 거기서, 대출했잖아요. 그리곤, ...(0.9) 그가 그러니까, ... 음, 그가 있잖아요, ..신용:대출부의 그가, 그리곤, 뭐냐, ..우리가 맞다고.)

예(17)에서 B는 제3은행의 태도를 묻는 A의 질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고 해당은행의 태도에 대해서도 덧붙여 진술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沒事

兒”이 “不管”이란 뜻이나는 A의 즉흥적인 질문에 B의 발화가 끊겼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어 끊긴 순간의 말을 다시 끌어와 진술을 이어가고 있다. 이때 ‘然後’는 예(18)에서도 볼 수 있듯이 “就是(說)” 등의 부가성분과 호응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언어자료 속 또 다른 예에서는 끊긴 부분이 ‘就是(說)’더라도 ‘복귀지점’에서는 ‘然後就是(說)’로 이어지기도 한다.

예(18)에서 B는 대출금환급은행의 분점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인칭직시어를 사용하면서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중간에 간단한 설명을 삽입하고 있다. 직시어를 살펴보면 “他”는 “深圳發展銀行”의 직원을 의미하는데, “他”의 제시만으로는 뒤이어 나올 “我”와 동일 인물임을 지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他那個, 信:貸部的”를 즉흥적으로 부가한 뒤 ‘然後’로써 ‘복귀지점’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2.3.4 발화공백 보충

계획되지 않은 상호작용 과정에서는 외적인 물리적 상황에 의해 또는 발화의도와와 불일치로 인해 순조로운 발화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다. 자신이 비록 과거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즉흥적으로 재구성하여 말을 하려 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발화되어 정정을 한다든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 한다든지 해서 발화의 공백이 발생한다. 이때, 발화의 공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공백을 메우는 기능의 언어항목(verbal filler)은 제한되어 있기 마련인데 ‘然後’가 바로 그 중 하나에 포함된다.(Huang 1993)

(19) B: 向總行投訴。投訴的第二天, ...南京의:, 就是::, 鼓樓那邊的吧。...然後呢, ..這個是-- 我剛才給你這個電話號碼。..就這個男的。就:, 就給我打電話了。

(B: 본점에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 이튿날, ...南京의:, 그러니까:, 鼓樓지역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좀 전에 준 이 전화번호호예요. ..바로 이 남자였어요. 어:, 제게 전화를 걸어 왔더라고요.)

예(19)에서 B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은행본점에 민원을 넣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원을 넣은 그 다음날 鼓樓분점의 민원창구에서 회신을 받았다는 것을 진술하고 있다. 화자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순조롭지 못한 회고는 “投訴的第二天, 這個男的就給我打電話了”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을 것을 뒷음절을 길게 늘어 발음한다든지(南京的:, 就是::, 就:), “就是”와 같은 보충어를 넣는다든지 또 “這個是--”처럼 말을 하다 포기한다든지 하며 “這個男的”에 대한 수식어들을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순조롭지 못한 사고과정 속에서 ‘然後’는 어떠한 의미도 담지 않은 채 오직 발화의 공백(또는 지연)을 메워주는 기능만을 담당하는데 이 경우 ‘然後’에는 보통 긴 쉽(‘...’)이 동반된다.(Huang 1993:65) ‘然後’의 이러한 발화공백 보충기능은 생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는, 긴 쉽이 크게 허용되지 않는 대화 상황에서 아직 못 다한 말이 남아있다거나 지금 생각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의미를 전달한다.7) 참여자의 미숙한 진술이 언제든지 진행자의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호작용 과정에서 말은 ‘然後’의 기능은 그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앞서 논의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동작 또는 상황의 전후’만을 표시하는 ‘然後’는 의외로 적을 수 있다. 이는 절 단위, 최대 문장 단위로만 그 분석의 범위를 국한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분석의 단위를 담화로 확대시킬 경우, 특히 거듭된 수정을 통해 생산된 텍스트로서의 담화가 아닌 계획 없이 진행된 상호작용 결과로서의 담화로 확대시킬 경우 ‘然後’의 모습은 다양하게 관찰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然後’의 기본의미를 ‘그(러한) 다음’으로 보았다. ‘동의’나 ‘확인’의 ‘然’이 ‘시간’의 ‘後’와 결합한 결과이다. 나아가 ‘然’이 갖고 있는 대응

7) 그래서 Huang(1993:62)은 이와 같은 ‘然後’를 망설임표지(verbal marker of hesitating)라고 하였다.

적, 전방조응적 기능에 힘입어 ‘然後’가 담화차원에서는 ‘선행발화를 인정한 뒤’ 또는 ‘선행명제를 전제한 뒤’ 등의 추상적 의미를 획득한다고 여겼다. 그렇다면, 사건의 전후관계를 비롯한 인과, 부연, 양보 등의 연결관계, 나아가 말차례와 발화보충까지, 앞서 열거된 기능들은 어떻게 ‘그(러한) 다음’이란 기본의미를 바탕으로 분화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본고는 ‘然後’가 갖는 ‘화자지향성’에서 단서를 찾고자 한다. ‘然後’에서 ‘인정’,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주로 자신이 앞서 발화한 행위 또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것의 전후관계, 진술 상의 사건 간 논리관계, 나아가 말차례의 유지와 획득에 관련된 행위 그리고 발화행위 자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발화보충의 기능은 모두, 기본적으로 청자 지향적이 아닌 화자의 발화내용과 행위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然後’ 전, 후에 대한 해석을 선행발화에 근거하여 찾음으로써 다시 이어질 발화의 해석 토대를 마련하고 일관된 진술을 위한 발화권 보호와 그것의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화자는 상호작용 과정에서 적절하게 ‘然後’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본고의 함의로서, 지금까지의 결과는 우리에게 언어연구에 대한 방법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문장에서 담화로, 백화문에서 상호작용의 결과로 분석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점, 나아가 언어항목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사용 중인 언어, 즉 대화의 역동성 속에서 전후 맥락을 파악하며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전 의미에 갇혀 평소 놓치고 있는 것들을 중국인 화자들은 일상 속에서 부단히 사용하며 그 사용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그 변화의 흐름은 참여자가 특정맥락 속에서 어떻게 발화하고 이해하며 상호 공유하는지를 관찰해야만 이해 가능할 것이다. 자연담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 참고 문헌

- 박성현, 『한국어 대화 화제와 말차례 체계』, 서울: 집문당, 2008.
- 이성하,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2006.
- 이원표, 「시간부사 ‘이제’의 담화기능」,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서울: 한국문화사 pp.27~59, 2001.
- 畢永峨, 「會話互動性和語言使用」, 『第四屆世界華語文教學研討會論文選集』, pp.227~236, 1994.
- 戴桂芙、劉立新、李海燕 편저, 『한어구어』3, 서울: 중국어뱅크, 2010.
- 黃宣範, 「言談詞的分析—方法學上的批評」, 『第四屆世界華語文教學研討會論文選集』, pp.459~471, 1994.
- 商務印書館辭書研究中心編, 『應用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0.
- 王 偉, 「試論現代漢語口語中‘然後’一詞的語法化」, 『北京第二外國語學院學報』第4期, pp.69~76, 2004.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古代漢語研究室, 『古代漢語虛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2004.
- Du Bois, John W., Stephan Schuetze-Coburn, Susanna Cumming, Danae Paolino, “Outline of discourse transcription”, Jane Anne Edwards, Martin D. Lampert(ed.), *Talking data: transcription and coding in discourse research*, Lawrence Erlbaum, pp.45~89, 1993.
- Heine, Bernd, Ulrike Claudi, Friederike Hünemeyer, “From cognition to grammar: Evidence from African languages”, Elizabeth Closs Traugott, Bernd Heine(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Focus 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vol.1, Philadelphia:John Benjamins pp.149~187, 1991.
- Hopper, Paul J.,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1999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1993.
- Huang, Shuanfan, “Pause as a window on the mind and the grammar—evidence from Spoken Chinese Discourse”,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Interfaces and the Chinese Language*, Ohio State University, pp.56~81, 1993.
- Sacks, Harvey, Emanuel A. Schegloff, Gail Jefferson, “A simplest systematics

- for the organization of turn-taking for conversation”, *Language* 50, pp.696~735, 1974.
- Schegloff, Emanuel A., Harvey Sacks, “Opening Up Closings”, *Semiotica* VIII.4, pp.289~327, 1973.
- Schiffirin, Deborah, *Discourse marke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Schiffirin, Deborah, *Approaches to discourse*, Oxford: Blackwell, 1994.
- Su, Lily I-wen, “Conversational Coherence: The Use of *Ranhuo* in Chinese Spoken Discourse”, In Shuanfan Huang(ed), *Selected paper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nguage in Taiwan*, pp.167~181, 1998.
- Traugott, Elizabeth C, Ekkehard König, “The Semantics—Pragmatics of Grammaticalization Revisited”, Elizabeth Closs Traugott, Bernd Heine(ed.), *Approaches to Grammaticalization: Focus 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vol.1, Philadelphia:John Benjamins pp.189~218, 1991.
- Wang, Chueh-chen, Lillian M. Huang, “Grammaticalization of Connectives in Mandarin Chinese: A Corpus-Based Study”, *Language and Linguistics* 7:4, 991-1016, 2006.
- Wang, Yu-fang, “The Functions of *Ranhou* in Chinese Oral Discourse”, *Proceedings of the 9th North American Conference on Chinese Linguistics* vol.2, pp.380~397, 1998.

❖ ABSTRACT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s of *Ranhou*
in Mandarin Chinese
— Focused on radio call-in programme

Park, Chan Wook

This paper aims to probe into the meaning of *Ranhou* in Mandarin Chinese and to account for discourse functions of it in radio call-in programme. For this purpose,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meaning of *Ran* and *Hou* respectively at first and explains the change of meaning of *Ranhou*, because we assume that *Ranhou* is compounded by *Ran* and *Hou*, and the core meaning is derived from its compounded meaning. Then we examine which time category *Ranhou* belongs to more based on the concept of time(reference, event, discourse) in Schiffrin(1987), and examine also where it is located within turn. Following this examination, we analysis and explain discourse functions what it is situated. Therethrough, we understand that 1) *Ran* has 'agreement or confirmation of preceded utterance' therefore has anaphoric meaning, and *Hou* has 'after' in the meaning cline: back of body—back part—behind—after—retarded(proposed by Heine et al. 1991), so that *Ranhou* has 'after agreement or confirmation of preceded utterance of mine' and extends to 'on premise preceded utterance or event' furthermore, and therefore can have possibility having various functions; 2) *Ranhou* has various functions in natural language in spite of the institutional setting. It can indicate ① temporal relation of events, ② logic relation of two(or more) events, e.g. causality, elaboration, concession, list, ③ turn maintence, acquisition, management, ④ verbal filler.

Key Words

然後, 자연담화, 어법화, 담화기능

Ranhou, natural language, grammaticalization, discourse function

논문접수일: 2011. 01. 20.

심사완료일: 2011. 02. 22.

게재확정일: 2011. 03. 10.